


뿌갈빠(Pucallpa) 호산나 소식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학개 2: 4).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뿌갈빠와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때로는 주께 받은 묵상의 글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학개사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늘 여러 모양으로 페루선교에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명을 주시되,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편에 서실 것이라고 격려하시며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학개사의 메시지를 오늘 중단없는 선교를 계속하도록 우리는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이번 회기 이곳 뿌갈빠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워도,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시어서 권능으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4, 5, 6월의 호산나 학교


유치원 놀이중심 수업

초등학교의 블랜디드 러닝

주님의 은혜로 호산나의 학사 일정들은 평안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작년의 교사들이 100%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새로 영입된 보조교사들도 차분하고 헌신적인 좋은 분들이어서 예년보다 안정적으로 이번 1학기를 보냈습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월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4월에는 ‘중이’를 특별 수업의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호산나에는 숲과 비교적 넓은 학교 뜰이 있어서 프로젝트 수업기간에는 아이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집니다. 5월에는 교육부가 지정한 ‘유치원 주간’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익히게도록 배우는 것이 특별 주제였습니다. 7월은 ‘페루’라는 국가를 배우는 ‘나라 사랑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6, 7월을 지나는 동안 학교는 온통 페루의 전통음악과 춤, 지형, 음식, 복식 문화, 그리고 그 다양성을 표현하는 ‘축제’ 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었습니다. 초등 학교는 아이들이 신체적, 학문적, 정서적,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초등 저학년 · 중학년 · 고학년의 시기에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들이 많아서 수업 배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해도 토요일에 선택 수업이 더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매일 1시간의 수업시간을 늘렸지만, 여전히 음악과 미술 보충, 체스,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예체능 수업의 반 이상은 토요일 선택 수업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5, 6월의 호산나: 가정과 함께



7월 - 나라 사랑의 달, 독립기념행사



다시 시작된 초등 6학년 수련회

COVID - 19 시기 이후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학교 수련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초등 3학년 이상 전 학년이 차례로 1박 2일의 수련회를 갖으며 아이들의 영성 및 성품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올해는 초등 6학년만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에 수련회를 하였던 ‘기드온의 집’이 팬데믹 이후 보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지이지만, 숙박을 하는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

기인 6학년들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서 기도가운데 올해의 수련회를 ‘이순’ 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남녀를 따로 구분하여 수련회를 진행하였고, 또 밤에는 학부형들을 초대하여 각 가정과 함께 진행하는 가치교육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기간이 배로 늘어나 일은 많아졌지만, 주님의 손에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맡겨 드리며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마무리한 귀한 저녁의 시간들이어서 감사하였습니다.



6월, 초등 6학년 1박 2일 수련회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수업들



페루의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작년과 동일하게 받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중고등학생 비율이 20명이 많아졌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안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일들에 좀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살피는 일들은 이곳에서도 학생지도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곳에서 역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관계 문제로 생기는 왕따의 문제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의 문제들, 이성간의 교제 문제들, 핸드폰 사용의 문제, 부모와의 소통문제들, 대입시의 문제들 etc.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일들에는 매일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따라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학교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함께 부르는 찬양들, 매일드리는 기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된 주님의 제자들이 배출되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호산나 학교 2026-1학기, 예배와 찬양



감뽀베르데, 뉴에바 엔칸토, 둘세 글로리아 교회

감뽀베르데 교회들은 여전하게 아나 마리아(Ana María) 자매와 엘씨타(Elsita) 자매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6월에는 엘씨타 자매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아나 마리아 자매와 함께, 그동안 유치부를 섬기던 소일라(Zoila)자매가 초등부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리안사 후베닐과 뉴에바 엔칸토 교회들도 주의 은혜 중 임멜(Immer) 형제와 다리오(Dario) 형제의 헌신을 통하여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뉴에바 엔칸토의 형제들은 몇몇 형제들의 세례와 결혼예식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 방문이 더 용이한 시기가 되어 감사하며 이번 7월 마지막 주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뽀베르데와 로스삐노스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아나 마리아 자매는 호산나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로, 주일 교회 사역의 모든 시간에 저와 동행합니다. 오전 7시 20분 경에 집을 떠나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정이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중에도 학교 일 뿐 만 아니라 이곳 현지교단인 IPXP신학교에 입학하여 저녁에 온라인으로 신학강의를 듣고 있어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한 학기를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주 앞에서 부지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잘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캄보베르데 교회 5월, 6월의 사진들



Levítico
Números
Deuteronomio

둘세글로리아 주일 예배, 제시카 교장님

둘세 글로리아 교회는 지난 2월의 특별 집회 이후 매주일 예배생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헌신을 작정하였던 데보라(Debora) 자매는 꾸준히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모임(비디오폰 미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어른 예배 준비와 어린이 교회학교 성경 수업을 위한 준비모임인데, 이란(Iran) 형제와 그의 아내 네리(Nery) 자매, 하이메(Jaime) 형제가 한 사역팀이 되어 이 모임에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데보라의 언니인 로시오(Rocio) 자매는 교회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살고 있어서 마음과는 달리 주말의 이 모임에 나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로시오 자매의 환경은 마을 원주민 형제들 중에서도 좀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의 소원 뿐입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먹거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토요일에도 정글에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8월 30일부터는 스위스 미션(Mision Siuza)이 운영하는 ‘아마존 원주민 복음주의 교회들을 위한 성경학원’ IBIENA (Instituto Bíblico para las Iglesias Evangélicas Nativas de la Amazonía)에서 이랑형제와 네리 자매가 성경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6학기 - 3년 과정의 교회 지도자(설교자) 훈련과정으로, 지난 5월에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았고, 입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둘세글로리아에 교회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감사하지만, 매 학기마다 3개월씩 합숙 훈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하이메 형제와 데보라 자매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 예배와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거의 이랑 형제가 가르치고, 네리 자매가 고등학생 자매들과 함께 찬양팀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받는 동안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첫 학기인 8월 넷째 주부터 11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회와 마을의 장로이신 베드로(Pedro) 형제가, 직접 설교는 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교회를 잘 지켜나가도록, 그의 영성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1. 호산나 학교의 2026학년도 2학기가 8월 3일에 시작됩니다. 학기를 마치는 12월 18일까지 주님께서 매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2학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지진과 자연재해의 위험과, 사회적 물리적 영적 혼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호산나의 학생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뿌갈빠에서 ISOM과정으로 교회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는 40여명의 형제들 중에서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호산나의 교사들 중에서 ISOM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7명의 교사들이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치며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역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호산나의 12명의 교사들이 지난 5월 16일부터 온라인 과정을 통하여 국제기독교학교연합(ACSI)이 추천하여 실시하는 '성경적 세계관' 수업 3개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 중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이후에 계속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된 자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돌세 글로리아의 이란(Iran) 네리(Nery) 부부와 그의 아들 조헤체르(Johecer, 5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8월 29일 - 11월 22일 까지의 IBIEBA 첫 학기 합숙 기간 동안 잘 적응하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주의 동역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원주민 마을을 떠나 살아 본 적이 없는 네리 자매와 조헤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캄보 베르데와 모든 시골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그 들 중에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8. 뿌갈빠에서 70 km 지점의 기도처인 마르데 플라타(Mar de Plata) 에 교회 건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가정집 규모의 헌납된 집에서 매주 2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성경공부모임을 갖고 있지만, 장소가 너무 비좁고 빈약하여 확장 혹은 재건축이 필요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한 후, 필요한 재정과 인력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 건축을 위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9. 7월 28일에 취임하는 페루의 신임 대통령과 새 정부 요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분열된 나라가 하나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페루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뿌갈빠에서 박정화 선교사 드립니다 -